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4일(수)

## 尹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채택 -

-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 교류·협력 강화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4, 수)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1981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 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해상 초계기 연합훈련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의 부산 기항 계기 훈련 실시 등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력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릭스 총리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끝>